

만화매체를 통한 역사대중화의 큰 성과

한 소장학자가 읽어본 만화한국사 시리즈

鄭泰憲

수원대 강사 · 역사학

역사학의 대중화와 매체물로서의 만화

역사연구가 연구자의 책상이나 머리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중과 접하고 만나면서 언제나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역사연구는 현실에 만족하고 현지배구도를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입장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려고 하는 진보적인 과학으로 대립되게 마련이었고, 이것은 지배이데올로기의 나팔수로서의 역할과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성을 강화하고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대립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대중들이 이제까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초중고교 시절 지배층과 그들이 장악한 매스컴을 통해 '길들여지다시피하여' 교육받아 온 歷史像은 철저하게 지배층의 이익을 위한 맹목적 반공 반통일적 역사상이었다. 이러한 반민족적 역사상의 유포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최근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역사연구의 '대중화'라는 문제이다.

이제 한국사상은 더이상 지배이데올로그들의 궤변에 방치시켜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들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때 대중이란 指導 被指導라는 친박한 관계속에서 말하는 대중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딛고 있는 현실속에서 운동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의 모순을 터득해가는 자주적인 인간형으로서의 대중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들에게 진보적인 역사학 성과를 제시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단순한 제시가 아니라 현실운동과 감각을 통해 얻어진 대중들의 역사인식을 공유한 대중들의 비판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역사연구(역사학뿐 아니라 일반 사회과학을 포함하여)의 '대중화'라는 과제는 전체운동의 한 부분 속에 위치한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전체 운동의 한 부분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바랄 수밖에 없는 대중들에게 전문연구자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서술 방법이나 체계로 '대중화'라는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그동안 역사학의 대중화라는 목표 속에 적지 않은 성과물이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범위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만화라는 매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담없이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연구의 대중화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대단히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중화'라는 과제의 수행이 자본주의사회라는 조건 속에서 출판사의 영업능력(상업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젊은 진보적 연구자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대단히 소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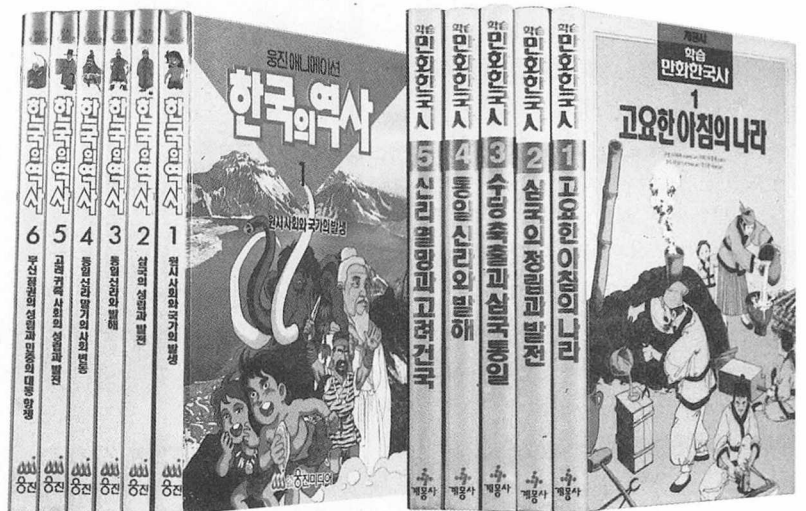
최근에 두 군데의 출판사에서 간행된 만화한국사 시리즈물은 이러한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시도의 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만화한국사 시리즈 출간의 의의

비슷한 시기에 계몽사와 웅진미디어에서 출간된 만화한국사 시리즈물은 일단 내용이나 視覺的인 점에서 대단히 유익한 기획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미없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갖기 쉬운 한국사에 대해 — 이러한 편견도 사실은 저간의 왜곡된 한국사교육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부담없이' 책을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사를 전공한다고 하는 필자 자신도 모두 40여권이나 되는 두 출판사의 만화한국사를 지루한 감 없이 대단히 흥미 있고 유익하게 읽었다.

사실 자기나라 역사책은 부담없으면서도 독자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내용성을 가지면서 누구나 쉽게 대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건 못받은 사람이건 대부분 역사를 단순히 외워야만 했고 지루했던 '과목'의 하나 정도로만 간주하게끔 만드는 무척이나 잘못된 우리의 역사교육 풍토에서 대중들은 역사의식의 '빈곤'을 각자의 현장경험 속에서 뒤늦게나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사의 궁극증을 더하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길들여지고 배워왔던 한국사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까지 갖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제까지의 한국사에 대한 대중들의 광범위한 의문은 역시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동안 대단히 부분적인 범위로 한정되어 있던 진보적 역사연구의 성과를 흡수하려는 요구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점이 바로 '대규모'출판사의 상업성과 영업능력에 결부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민족민주운동에 공감하는 진보적 대중이 현실 속에서 체득한 역사



인식이 더 이상 이제까지와 같이 체계유지를 위한 천박하고 맹목적인 반통일적 반공적 역사교육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성숙해졌다는 적극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필자가 크게 평가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어떤 개설서보다도 이번 두 출판사의 만화한국사에서는 일반 민중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다뤘다는 점이다. 특히 웅진판에서는 거의 모든 券에서 '민중의 생활'이라는 별도의 章을 설정하였는데 이 점은 역사서술상의 커다란 발전이라고 생각된다. 역사란 대다수의 민중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하는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주는 것이데도 이제까지의 한국사개설서에서는 자신들 중심의 기록과 자취를 남긴 지배층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되고 비판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만화한국사의 개요

계몽사의 '학습만화한국사' (20권, 별책으로 학습한국사사전)와 웅진미디어의 '한국의 역사' (16권, 별책 2권)는 '성인용' '청소년용' '아동용' 등과 같이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대체로 독자층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계몽사판은 웅진판과 비교할 때 그림과 아울러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적지않은 분량의 서술이 같이 달려 있고 만화 그림 자체도 웅진판의 '천진스러운' 느낌과 달리 '어른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어서 고교생 이상 일반시민들에게 적합하고 웅진판은 그보다 나이 어린 층에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웅진판은 8·15 이후의 현대사를 전혀 다루지 않은 반면에 계몽사판은 8·15 이후 전두환정권에 이르기까지의 현대사를 3권의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까지의 다른 개설서와 달리 계몽사판이 현실적으로 다루기 결구려운 현대사에 대해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평가하고 싶다.

계몽사판이 현대사를 다룬 3권을 빼면 일제 식민지시대까지 다룬 분량은 17권으로 웅진판의 16권과 비슷하고 각 시대별로 할애한 분량도 서로 비슷하다.

두 출판사의 작업과정이 다소 달라 계몽사판은 20명의 各券 집필자들에게 원고를 받아 그것을 기초로 만화가(이원복)가 만화작업을 하였고, 웅진판은 만화가가 직접 만화작업을 하고 몇사람에게 감수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가장 효율적인 것은 만화가가 전공자 이상으로 역사공부를 해서 소화된 것을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역사연구자와 만화가 사이의 협동작업이 필요한데 문제는 집필자의 의도와 만화가의 의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따라서 원고 내용상의 문제와 만화가의 역사인식 문제가 그대로 만화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비평은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필자가 읽어가면서 그때 그때 느꼈던 몇가지

斷想을 피력해보기로 한다.

1) 한국사의 전체적인 발전상이 별로 나타나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상대적으로 外侵과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실상은 비교적 잘 드러나 있는데 반해 수천년 역사 속에서 각 시대별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면서 전개되어 온 민중들의 생산력 창조와 문화발전 에 대한 서술부분은 대단히 부족하다. 일반 민중들과 지배층과의 지배관계(생산관계)도 수천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발전의 모습도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민중의 생활'이라든가 각 장에서 서술되어 있는 민중들의 실상에 대해, 좀 혹독하게 얘기하면, 三國 이전의 농민들이나 조선 시대 심지어 일제시대의 농민들이 그 오랜기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수탈당하고 저항하는 농민들로 똑같이 그려져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역사인식상의 큰 한계이자 오류이다. 다만 조선시대 후기부분은 저간의 연구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또 만화가가 참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훌륭한 時代史 개설서도 나와 있어서 앞시대와 質적으로 구분되는 그 발전과정이 비교적 알기 쉽고 뚜렷하게 서술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대사부분의 서술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식민사학의 영향도 있고 해서 야마 領域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만화한국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애매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극복된 漢四郡의 在韓半島說의 편린이 그대로 드러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엿보인다. 고조선에서 부여, 고구려에 이르는 고대 한국의 역사무대는 사실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지역이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상식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고 식민사학의 기초를 세운 것이 바로 일제였다.

그리고 한국고대사에서 고조선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夫餘史에 대해서는 두 책 모두 그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한국사연구 분야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인 고대사부분은 두 책 모두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리고 중세사의 부분에서 "고려때는 모든 토지가 국유지"였다는 이미 부정된지 오래된 '토지국유제론'이 천연스럽게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3) 지배자에게 종속된 민중들의 정서가 회화적으로 표현되거나 지배층 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자겸 일파가 타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는 식의 표현이라든가 임금의 '어진 정치'를 강조하거나 그 반대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계모인 인목대비를 폐비시킨 사실을 두고 "인륜에 어긋난 일"이라는 따위의 표현은 피할 수도 있었던 청나라와의 전쟁을 불러 일으켰던 '인조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집권층의 기록에 나오는 얘기일 뿐 역사적 평가로는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 고대나 중세시대의 군주와 지배층 가운데 이 정도의 '패륜아'나 '살인마'는 사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

4) 식민지 시대 이후 5공화국에 이르는 근현대사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부분이고 대형 상업출판사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局部的으로 그리고 다분히 현 집권세력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민족해방운동의 경우 그동안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사실을 많이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의 역동적인 모습은 상당히 훼손되어 그려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던 사회주의자들은 사나운 얼굴로 묘사한다든지 그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의 취급하지 않는 등의 양태는 이제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예컨대, 미소공위를 대하는 국내 정치세력을 단순하게 親美, 親蘇派로 도식화한다든지 창설 초기의 군지휘관이 대부분 항일투쟁을 한 사람이었다는 식의 서술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침소봉대하는 격일 뿐 아니라 실제와도 거리가 멀다. 그리고 국회프락치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사실의 진위여부조차 문제되는 상황인데 당시의 반민특위 탄압과 관련된 이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외에도 근현대사부분은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이제까지의 다른 한국사 개설서보다는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정 보완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그치기로 한다.

저작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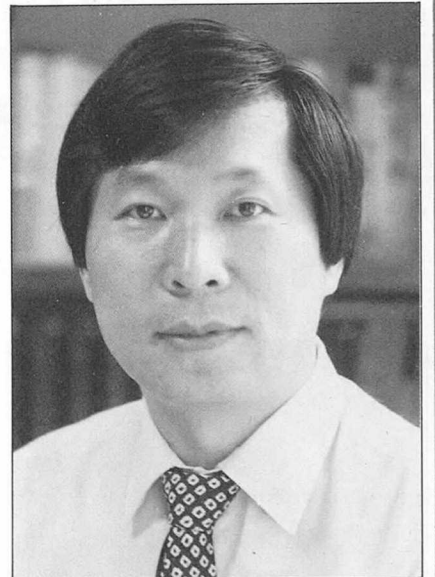
한국현대사의 정신사와 예술사

「한국현대사사」

김재홍

경희대 교수 · 국문학

한국 근·현대시인에 대한 기왕의 내 연구들은 이 「한국현대사사」 저술을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나의 전공분야는 한국 근대문학연구, 특히 그중에서 현대시에 관한 연구와 비평이다. 그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서 나는 지금까지 「한용운문학연구」「현대시와 열린정신」「현대시와 역사 의식」「한국현대시형성론」「한국현대시인연구」「카프시인비평」 등의 책을 펴낸 바 있다.

크게 보아서 나의 현대시 연구에 관한 관심은 세가지 방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현대시에 대한 비평작업이다. 비평작업이란 일종의 현장비평으로서 이즈음 발표되는 시에 대한 실천비평을 일컫는다. 시월평이라든지 계간평, 연간평 등 구체적인 시와 시인을 선택해서 이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해서 평가를 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참여하지만, 이러한 실천비평작업은 시와 시단에 대한 현장감과 동향을 파악하는데 긴요한 일로 판단되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편이다. 둘째로는 시인연구라고 하겠다. 앞서 든 저서 중 「한국현대시인연구」「카프시인비평」 등은 근현대시인들에 대한 개괄적 탐구를 진행한 것이며, 「한용운문학연구」는 한 시인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집중연구와 개괄연구는 세번째 방향인 현대시사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이면서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세번째 방향인 이 「한국현대사사」 연구작업은 나의 마지막 목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정신사와 예술사를 함께 통합해 내고자 하는 나의 「한국현대사사」는 참으로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나의 연구작업은 대체로 두번째 항목, 즉 시인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봄에 펴낸 「카프시인비평」은 지금 몇년째 계속하고 있는 「한국프로시인연구」의 중간보고서에 해당한다. 앞으로 더 연구를 진행해서 해방공간까지를 포함하고, 기왕의

「한국현대시인연구」를 개편, 증보하면서 이 「한국프로시인연구」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작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요즘 좀 조금씩 현대시의 대중화작업이랄까 하는 쪽에 관심을 쫓고 있는 형편이다. 문학연구 특히 시비평은 근자에 지나치게 전문화·고답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더구나 시는 시대로 어려워지고, 비평은 비평대로 현학적인 경우가 많아서 시와 독자는 점차로 유리돼가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대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감상하는, 일종의 감상비평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삶을 떠난 시가 있을 수 없듯이 독자를 떠난 시는 참된 시·좋은 시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즈음 「현대시학」지에 「다시 읽어보는 현대시」를 매달 연재하는 한편 불교방송에 「불교의 명시」 진행을 맡아서 현대시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감상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문연구자로서 일종의 외도(?)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어렵게 생각되는 시를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시와 친근해지는 경우를 보면서 연구할 때의 궁지 이상으로 보람을 느끼곤 한다. 현대시들 가운데 독자들에게 덜 알려졌지만 좋은 시를 가려내고, 그에 대해서 분석, 해석, 비평하고 알기 쉽게 감상함으로써 시에 감춰진 삶의 지혜와 생명의 향기를 맛보게 하는 일이야말로 비평의 궁극적 기능이자 시 연구자 내지 비평가로서 할 수 있는 참으로 보람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내가 가야할 길은 갈수록 험하고 멀게만 느껴진다. 앞서 높은 업적을 쌓고 있는 몇몇 분들을 보면 외경감과 함께 절망감이 들곤 한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20여년동안 오로지 한 뜻으로 걸어온 현대시 공부의 길인 걸…….